

윤활소식

—協會·理事會·總會開催—

協會는 지난 12월19일 協會會議室에서 제2차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각각 갖고 92年度事業計劃과 收支豫算(案)을 各各 確定하였다.

—협회·연료조합-폐유배출업소에 홍보강화—

환경저소관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92년부터 폐기물처리비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윤활유협회와 회수처리업체의 모임체인 연료조합은 새로 시행되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폐유배출업소인 정비소, 카센터, 세차장 등에 홍보전단을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다.

관계법에 의하면 무허가소각 시설에 폐유를 소각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폐윤활유를 월 100kg(약반드럼)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 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무허가 수거업자에게 폐윤활유를 인계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엔진오일交換이어 엔진눌러붙는일 많아—

근간 자동차정비업계에 의하면 엔진이나 기어박스가 눌러붙는 고장이 나서 정비업소를 찾아 오는 자동차가 많다고 한다.

1개 정비업소에서 한달에 한 두건씩 이런 손님을 맞게 된다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 연소자나 부녀자들이 오너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연소자나 부녀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모르고 오직 연료를 넣고 시동만 걸리면 차가 나가는 줄로만 알고 있으며 엔진오일의 교환을 모르거나 교환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오너들의 깊은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韓佛潤滑油(株) 人事斷行—

韓佛潤滑油(株)는 지난 11월9일자로 宋振煥社長이 退社하고 極東精油(株) 監事인 姜英求社長이 後任으로 부임하였으며 金應淳專務는 永進石油(株) 代表理事로 轉輔되었다.

—湖南精油(株) 人事—

湖南精油(株)는 지난 12월24일자로 人事를 斷行하고 具進會營業擔當專務理事를 副社長으로 金莊秀理事를 常務理事로 各昇進發令하였다.

—'92潤滑界 新年 交禮會 開催—

協會와 潤滑學會는 共同으로 "'92潤滑界 新年 交禮會"를 오는 1월11일 여의도소재 全經聯會館 20층 연회장에서 갖는다. 業界·學界·研究所에 종사하는 全潤滑油人의 상호 교의와 친목을

을 다지고 '92년의 業界發展을 期約하는 이 뜻깊은 交禮會에 主催측은 많은 參席을 바라고 있다.

—潤滑學會·定期總會및 第14回 學術講演會—

韓國潤滑學會는 定期總會및 學術講演會를 지난 11월15일 고려대학교 이공대강당에서 갖고 92년도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을 확정하였다. 또한 이총회에서는 任員 改選을 통하여 文章珍會長 後任으로 安明柱 油公 副社長과 副會長에는 서울大 韓東哲教授·韓田油化 金柱恒專務가 各選任되었다.

이날의 學術講演에는 "소련과의 기계기술 협력방안"에 대하여 KIST 權五龍博士가 그리고 6편의 論文이 發表되었다.